

□ 중남미(멕시코)

장르나 스타일로도, 구성으로도 다양한 음악인이 멕시코 해외 음악 쇼케이스에 참가 신청하였다. 다양한 기준을 두고 평가에 임했다. 특히 이번 쇼케이스에선 비즈니스 부문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.

비즈니스 계획서에 쓰여있는 수행능력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과 계획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두었고, 또 왜 멕시코에서 공연을 하려 하는지 근거를 살폈다.

무엇보다 음악인의 역량, 즉 국내외에서의 인지도와 활동 실적, 음악 역량, 라이브 퍼포먼스 등에 높은 배점을 두고 두루 평가했다.

자연스레 단독 공연을 염두에 두고 40분 이상의 공연을 끌어갈 수 있는 팀이 대상이 됐다.

장르적인 가중치를 두거나 균형을 맞추지는 않았고, 같은 레이블이나 에이전트에서 여러 팀의 서류를 제출했어도 독립된 각각의 음악인으로 간주해 평가했다.